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 척도(PAQ) 타당화 및 부모양육태도와 가족 기능과의 관계 분석

이현주* · 강민희**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Buri(1991)가 개발한 부모양육태도 척도(PAQ)를 타당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양육태도 양상을 살펴봄, 부모양육태도와 가족 기능(응집성, 적응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자는 12~17세 남녀 중·고등학생 475명이었 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에서도 Buri의 3요인(민주적·권위적·허용 적 양육태도) 모델이 검증되었고, 구인타당도(Cronbach's $\alpha=.49-.88$) 역시 양호하였다. 준거 척도인 부모양육행동과 PAQ와의 상관분석 결과, 부모양육행동 하위 척도들(친밀감 및 합리성, 통제, 과잉보 호, 방임)과 모두 정적·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적절한 공인타당도를 나타내었다. 부모양육태 도의 일치도는 75.6%이었고, 한국 청소년들의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지각 중 민주적 양육태도의 비율 이 가장 높았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양육태도를 더 권위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경제수준 에 따라서는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부모양육태도를 더 민주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기능의 균형 상태(연결, 융통)는 민주적 양육태도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권위적·허용적 양육태도와 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응집성과 적응성이 균형을 이룬 가족의 부모는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이 는 반면, 극단 가족의 부모는 권위적·허용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부모양육태도, 가족응집성·적응성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minheek@hotmail.com

I. 서 론

가족은 인간이 최초로 접할 수 있는 일차적 환경으로, 한 사회를 존속시키고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가족기능이 사회로 많이 이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적·정서적 만족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역할은 가족의 고유한 기능으로 남아있다. 그 중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급격한 신체적, 성적 성숙과 함께 자의식이 발달하고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 자아 정체감 형성 및 특유의 발달과정을 가지는 갈등과 상황적 스트레스의 시기를 겪게 된다. 이러한 발달과정에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지향적인 청소년상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Feldman & Alto, 1996).

부모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내적, 외적 태도나 행동을 총괄하는 것으로, 부모가 얼마나 자녀에게 지지적이고 엄격한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가족이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Coleman et al., 2000; Hofferth & Anderson, 2003). 한편,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자녀가 변화하는 다양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모의 역할과 양육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육태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육태도와 분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Paikoff & Brooks-Gunn, 1991).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최근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를 아동기 자녀의 경우와 분리하여 연구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육태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아동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측정도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숙·우희정·김미란, 2000).

한편, 어느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일한 양육태도도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에 따라 자녀에게 다른 의미로 지각될 수 있으며(Spencer & Dombush, 1990),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도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발달특성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할 때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행된 양육태도에 관한 초기 연구들(김재은, 1974; 이원영, 1983)

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발달특성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나, 외국 척도들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정·번안하여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청소년의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평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척도는 거의 없었다.

한편, 국내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부모양육태도 척도로는 Parker 등(1979)이 제작한 부모-자녀 결합형태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와, Baumrind의 부모양육태도 이론을 근거로 Buri(1991)가 개발한 부모권위척도(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가 있다. 우선, PBI의 경우, 부모양육 차원을 온정성과 과보호의 2요인으로 구분하고 총 2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송지영(1992)의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기존의 1개 문항을 삭제하여, 총 24문항 2요인으로 척도가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척도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회고적 자기보고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을 평정하도록 제작된 것이다. 한편, PAQ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허용적(permissive), 권위적(authoritarian), 민주적(authoritative) 양육태도의 3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허용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거의 통제하지 않으며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태도이고, 권위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들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태도이며, 민주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지도함에 있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따뜻하고 합리적이며 일관적인 방식을 취하는 태도를 말한다. PAQ의 경우에도, 개발 이후 국내연구에서 수정·번안하여 많이 활용되었으나(김연실, 2000; 이혜진, 2002; 표경선·안도희, 2006), 척도의 요인구조 적합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단순히, 수정·번안하여 사용되거나, 탐색적 요인분석 수준에서 척도를 타당화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 역시 청소년을 제외한 대학생이나 초등학교생이었다.

이와 함께 한국적 자녀양육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국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또 다른 측면으로는 부모 역할의 차이 및 상호보완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Kim과 Choi(1994)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헌신은 엄격함과 결부되는 반면, 어머니의 헌신은 관대함 및 자애로움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방희정(2000) 또한 자녀는 가장인 아버지로부터는 사회적 안정을, 어머니로부터는 정서적 안정을 얻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로 한 번에 응답하도록 하거나(박영신·김의철, 1998; 이영미, 1992)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을 조사한 후 부모의 양육태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원유미, 1999) 기존의 연구들은 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umrind의 이론을 근거로 Buri(1991)가 개발한 PAQ를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아버지에 대한 자료와 어머니에 대한 자료를 분리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여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오정현·정태현, 2006).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 중, 고, 대학생들이 인식한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예외적으로 지시/통제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차원에서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현상을 보였다. 합리적 지도와 과보호에서 대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낮았으며, 성취압력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는 높았고 대학교에서는 낮았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 인식에 있어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방희정, 2000; Kim & Choi, 1994), 이는 결국 부모의 양육태도척도를 타당화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발달단계나 부모 및 청소년의 성별 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2차적인 사회관계, 즉 또래관계 및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만 관심을 기울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1차적인 환경인 가족 기능 혹은 가족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김원경 외, 2006; 도현심 외, 2005; Barber, 1996; Hart et al., 1998).

가족의 기능이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 활동들로, 가족의 생존을 위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다(Feetham, 1983). 가족의 기능적 특성은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을 그 하위 요인으로 하고 있다. 가족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로 정의되는데(Olson et al., 1983), 가족 내 적절한 응집성은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정도가 개인의 자율성과 균형을 이루면서 효율적인 가족기능을 수행하고 개인의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 다른 가족의 기능적 특성은 가족 적응성인데, 가족 적응성은 가족 구성원이 상황적 과정과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에서의 역할이나 규칙, 권력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Olson et al., 1983). 즉, 응집성과 적응성 두 하위요인을 포함한 가족의 기능적 특성은 가족 내에서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가족구성

원들 간의 상호작용적 기능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개념이다(이상길,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Baumrind의 이론을 근거로 Buri(1991)가 개발한 PAQ가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를 잘 측정할 수 있는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한국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유형과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중심으로 가족기능이 어떠한 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양육태도 척도(PAQ)가 타당하고 신뢰로운가?

둘째,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한국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국한한 다단계군집표집(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하여 5개구를 선정한 결과 5개교가 표집되었고, 중학생 206명(2개교), 고등학생 269명(3개교) 총 475명이 최종 대상이었다. 남학생은 269명, 여학생은 206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14.7세였다.

한편,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2007년 4월에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1차 번역 및 수정을 실시하였고, 5월에 현장 교사들에게 1차 완성된 설문지의 적용가능성을 검증받았고 이를 토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6월에 예비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양육태도 척도

Buri(1991)가 개발한 PAQ(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번안하였다(부록 1 참조). 우선, 기존에 PAQ를 사용하였던 연구(김연실, 2000; 이혜진, 2002; 표경선·안도희, 2006)의 번역본들과 비교하여 청소년용으로 수정·번안한 후,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번역 전문가가 역 번안한 문항들과 비교하여 수정하였다. 이후 관련분야 박사 2인의 내용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질문지가 작성되었다. 이 척도는 Baumrind(1971)의 부모양육태도 이론에 근거하여 만든 자기보고식 척도로, 허용적, 권위적, 민주적 양육태도의 3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척도당 10문항씩 총 30문항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모양육행동 척도

Baumrind의 이론을 근거로 구성된 김지신(1996)의 양육행동 척도와 자녀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Barber(1996)의 척도를 토대로 김혜영(1999)이 보완하여 재구성한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4차원 38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부하가 낮은 1문항을 제외하고 37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4차원은 친밀감 및 합리성, 통제, 과잉보호, 방임이며,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3, .83, .79, .65로 신뢰로운 수준을 보였다.

3)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평가 척도

Olson의 FACES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 FACESIII, FACESIV 문항들 중 공통된 문항을 모아 하나로 통일하고, 국내 연구들을 종합하여 번안한 김수연(1998)의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응집성과 적응성의 2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차원마다 그 수준에 따라 3가지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응집성의 하위 척도는 유리, 연결, 속박이고, 적응성의

하위 척도는 경직, 융통, 혼동이며, 총 46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2가지 차원 중 응집성의 각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1, .78, .68이었고, 적응성의 각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68, .82, .76으로 신뢰로운 수준을 보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5.0과 AMOS 7.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부모양육태도 척도(PAQ)의 신뢰도와 타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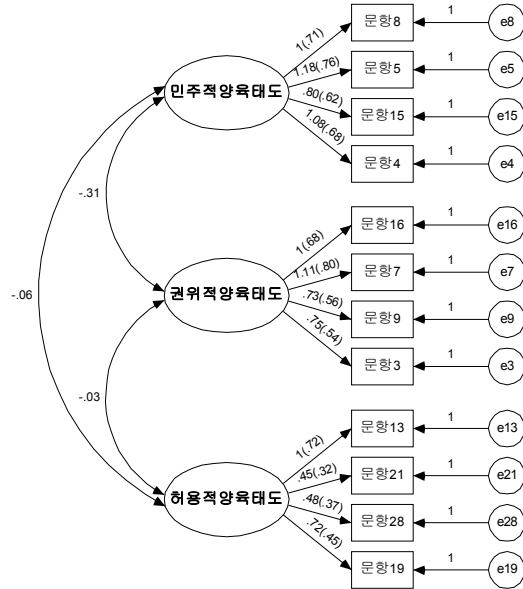
1) 부모양육태도 척도(PAQ)의 타당도 검증

Buri(1991)가 개발한 PAQ(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의 한국 적용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총 30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표 1〉 참조), 그 중 요인부하량이 .40 이하인 문항은 제거하여 최종 24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후 각 하위 척도의 대표 문항 4개씩 총 12문항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 Buri의 PAQ 한국 적용 모형은 [그림 1], [그림 2]와 같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의 적합성 결과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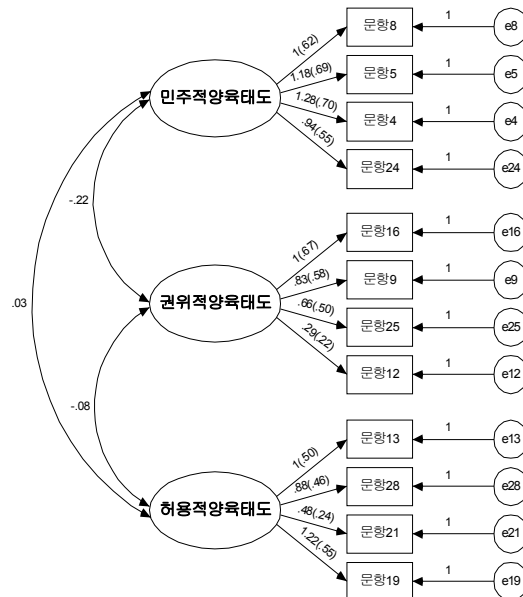
<표 1> 부모양육태도 척도(PAQ)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父)	요인 1 (민주적)	요인 2 (권위적)	요인 3 (허용적)	문항(母)	요인 1 (민주적)	요인 2 (권위적)	요인 3 (허용적)
문항 8	.724			문항 8	.693		
문항 5	.700			문항 5	.682		
문항 15	.690			문항 4	.679		
문항 4	.690			* 문항 24	.647		
* 문항 24	.681			문항 15	.606		
문항 23	.640			문항 22	.582		
문항 30	.633			문항 23	.548		-.434
문항 22	.632			* 문항 6	.547		
문항 11	.596			문항 30	.542		
문항 27	.565			문항 27	.509		
* 문항 6	.564			* 문항 14	.501		
* 문항 14	.536			문항 11	.496		
문항 16		.661		문항 16		.620	
문항 7		.617		문항 9		.587	
문항 9		.600		문항 25		.561	
문항 3		.569		문항 12		.555	
문항 25		.556		문항 7		.550	
문항 12		.555		문항 18		.549	
문항 29		.525		문항 29		.529	
문항 18		.512		문항 3		.446	
문항 13			.711	문항 13			.619
문항 21			.574	문항 28			.580
문항 28			.558	문항 21			.504
문항 19			.517	문항 19			.476

* Buri(1991)의 PAQ에서는 '허용적 양육태도'에 포함된 문항이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민주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나타남.



[그림 1] 부모양육태도 척도(父)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그림 2] 부모양육태도 척도(母)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표 2> 부모양육태도 척도(PAQ)의 적합도 지수

모델	χ^2	RMSEA	NFI	TLI	CFI
부(父)	130.89 (df=51, p=.000)	.05	.99	.99	.99
모(母)	177.77 (df=51, p=.000)	.07	.99	.99	.99

주 : χ^2 (카이제곱), RMSEA(근사오차제곱평균의제곱근), NFI(표준적합도지수), TLI(터커-루이스 지수), CFI(비교 적합도지수)

절대적합지수로서의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이순목, 2000), 본 연구에서는 참고지수로만 사용하고 RMSEA 값을 보았다. RMSEA는 χ^2 값의 한계를 수정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로서 모델을 모집단에서 추정하는 경우에 기대 되는 적합도이다(Browne & Cudeck, 1993). RMSEA 값이 .10 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1 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로 평가하는데(Steiger, 1990), 본 연구결과의 RMSEA 값인 .05(父)와 .07(母)은 양호한 적합도에 해당한다. 또한, 상대적합지수인 NFI, TLI, CFI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의 NFI(=.99), TLI(=.99), CFI(=.99)는 권장수용수준인 .90 이상을 모두 넘고 있어 전반적으로 좋은 합치도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uri의 부모양육태도 척도(PAQ)는 한국 상황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모양육태도 척도(PAQ)의 신뢰도 검증

부모양육태도 척도(PAQ)의 각 요인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들 간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PAQ 전체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65(父), .60(母)으로 나타났고, 각 요인별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는 민주적 양육태도 요인 .88(父), .85(母), 권위적 양육태도 요인 .77(父), .73(母), 허용적 양육태도 요인 .52(父), .49(母)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PAQ의 각 하위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 간의 동질성은 허용적 양육태도 요인을 제외하고 .73-.88 사이로 신뢰롭게 높은 수준이었다. 허용적 양육태도 요인의 신뢰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치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첫째, 요인부하량 .40 이상의 기준에 의해 포함된 문항의 수가 너무

적었고(4문항),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허용적 양육태도의 특징인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태도를 민주적인 양육태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Buri(1991)의 PAQ에서는 허용적 양육태도 요인에 속하던 문항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적 양육태도 요인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AQ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모두 민주적 양육태도와 권위적 양육태도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3> 부모양육태도 척도(PAQ)의 요인별 신뢰도

요 인		신뢰도계수(Cronbach's α)	
		부(父)	모(母)
요인 1	민주적 양육태도	.88	.85
요인 2	권위적 양육태도	.77	.73
요인 3	허용적 양육태도	.52	.49

<표 4> 부모양육태도 척도(PAQ)의 요인들 간 상관

부(父)	민주적 양육태도	권위적 양육태도	허용적 양육태도	모(母)	민주적 양육태도	권위적 양육태도	허용적 양육태도
민주적 양육태도	1.00			민주적 양육태도	1.00		
권위적 양육태도	-.45**	1.00		권위적 양육태도	-.44**	1.00	
허용적 양육태도	-.04	-.07	1.00	허용적 양육태도	-.01	-.05	1.00

** $p < .01$

3) 부모양육태도 척도(PAQ)와 부모양육행동 척도 간의 관계

부모양육태도 척도(PAQ)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해 부모양육행동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먼저, 아버지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민주적 양육태도는 친밀감 및 합리성, 방임 요인들과는 정적 상관을, 통제, 과잉보호 요인들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권위적 양육태도는 친밀감 및 합리성, 방임 요인들과는 부적 상관을, 통제, 과잉보호 요인들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허용적 양육태도는 친밀감 및 합리성, 과잉보호 요인들과는 부적 상관을, 통제, 방임 요인들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민주적 양육태도와 방임 요인 간, 허용적 양육태도와 통제 요인 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상관관계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표 5〉 참조). 이는 부모가 모두 민주적 양육태도나 허용적 양육태도를 보이더라도 방임하거나 통제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PAQ 3가지 양육태도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한국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양육태도를 평정하는 도구로써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부모양육태도 척도(PAQ)와 부모양육행동 척도 간의 상관

부(父)	민주적 양육태도	권위적 양육태도	허용적 양육태도	모(母)	민주적 양육태도	권위적 양육태도	허용적 양육태도
친밀감 및 합리성	.75**	-.34**	-.22**	친밀감 및 합리성	.76**	-.38**	-.19**
통제	-.55**	.68**	.11*	통제	-.59**	.64**	.06
과잉보호	-.24**	.39**	-.10*	과잉보호	-.21**	.34**	-.13**
방임	.11*	-.10*	.29**	방임	.03	-.11*	.32**

**p<.01, *p<.05

**p<.01, *p<.05

2. 한국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분석

1) 한국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유형 현황

〈표 6〉은 한국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 모두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60.6%(父), 66.9%(母)), 어느 한 유형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복합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4.0%(父), 3.8%(母)).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서로 일치한다고 인식한 청소년의 비율이 7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모양육태도 현황

		어머니 양육태도				전 체
		민주적	권위적	허용적	복합적	
아버지 양육태도	민주적	262(55.2)	18(3.8)	6(1.3)	2(0.4)	288(60.6)
	권위적	36(7.6)	69(14.5)	7(1.5)	7(1.5)	119(25.1)
	허용적	16(3.4)	12(2.5)	20(4.2)	1(0.2)	49(10.3)
	복합적	4(0.8)	4(0.8)	3(0.6)	8(1.7)	19(4.0)
전 체		318(66.9)	103(21.7)	36(7.6)	18(3.8)	475(100.0)

빈도(%)

2)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차이

성별과 학교급, 그리고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표 8> 참조). 먼저, 성별에 따른 결과는 부모 모두 권위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6.36$, $p<.001$ (父); $t=5.82$, $p<.001$ (母)). 즉, 부모가 권위적이라고 느끼는 청소년들 중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권위적인 정도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학교급별(중학생-고등학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모든 양육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발달과정에 차이가 나는 초기청소년과 후기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며(오정현·정태연, 2006),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동기를 벗어나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초기에 보였던 양육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며, 그들과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7>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양육태도(父) 차이검증

변 인	구 분	민주적 양육태도	권위적 양육태도	허용적 양육태도
성 별	남	3.27(.67)	2.90(.72)	2.61(.68)
	여	3.34(.71)	2.50(.64)	2.52(.65)
	<i>t</i>	-1.10	6.36***	1.52
학교급	중학교	3.27(.69)	2.68(.70)	2.54(.64)
	고등학교	3.32(.69)	2.75(.72)	2.60(.69)
	<i>t</i>	-.83	-1.08	-1.03
경제수준	상	3.49(.72)	2.74(.78)	2.59(.56)
	하	3.01(.76)	2.85(.84)	2.61(.79)
	<i>t</i>	3.46***	-.74	-.16

*** $p < .001$

평균(표준편차)

<표 8>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양육태도(母) 차이검증

변 인	구 분	민주적 양육태도	권위적 양육태도	허용적 양육태도
성 별	남	3.38(.60)	2.82(.64)	2.52(.68)
	여	3.49(.63)	2.49(.60)	2.44(.64)
	<i>t</i>	-1.93	5.82***	1.27
학교급	중학교	3.42(.64)	2.65(.65)	2.49(.63)
	고등학교	3.43(.60)	2.70(.65)	2.48(.68)
	<i>t</i>	-.30	-.74	.10
경제수준	상	3.59(.68)	2.62(.74)	2.62(.64)
	하	3.34(.65)	2.72(.68)	2.62(.78)
	<i>t</i>	2.02*	-.72	.02

*** $p < .001$, * $p < .05$

평균(표준편차)

청소년들이 지각한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 모두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46$, $p<.001$ (父); $t=2.02$, $p<.05$ (母)). 즉, 부모가 모두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경제수준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더욱 민주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권위적 양육태도나 허용적 양육태도에서는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부모양육태도와 가족 기능 간의 관계

1) 부모양육태도 척도(PAQ)와 가족 기능 척도 간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가족 기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먼저, 아버지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민주적 양육태도는 연결, 융통 요인들과는 정적 상관을, 유리, 속박, 경직, 혼돈 요인들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권위적 양육태도는 연결, 융통 요인들과는 부적 상관을, 유리, 속박, 경직, 혼돈 요인들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허용적 양육태도는 유리, 혼돈 요인들과는 정적 상관을, 연결, 융통 요인들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허용적 양육태도와 융통 요인 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상관관계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표 9〉 참조). 전체적으로 민주적 양육태도는 가족의 응집성이나 적응성의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연결, 융통 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권위적 양육태도나 허용적 양육태도는 같은 2요인들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가 보이는 양육태도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가족 기능이 균형 있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부모양육태도 척도(PAQ)와 가족 기능 척도 간의 상관

	부(父)	부(父) 양육태도				모(母)	모(母) 양육태도		
		민주적	권위적	허용적			민주적	권위적	허용적
응 집 성	유리	-.49**	.35**	.25**	응 집 성	유리	-.36**	.33**	.18**
	연결	.56**	-.22**	-.15**		연결	.51**	-.22**	-.12**
	속박	-.21**	.27**	.05		속박	-.23**	.31**	.05
적 응 성	경직	-.35**	.49**	.02	적 응 성	경직	-.28**	.43**	.03
	융통	.64**	-.32**	-.12*		융통	.58**	-.29**	-.07
	혼돈	-.44**	.22**	.29**		혼돈	-.40**	.24**	.22**

** $p < .01$, * $p < .05$

** $p < .01$, * $p < .05$

2) 부모양육태도 유형과 가족 기능 간의 관계

가족 기능의 2차원인 응집성과 적응성이 각 차원에서 균형을 이루었을 때를 말하는 연결과 융통 요인에서 부모양육태도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10〉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가족 기능 차이검증

변 인	구 분	응집성-연결	적응성-융통
양육태도 (父)	민주적	3.37(.50)	3.60(.53)
	권위적	2.90(.52)	3.01(.56)
	허용적	2.80(.48)	2.96(.58)
	<i>F</i>	51.17***	64.13***
양육태도 (母)	민주적	3.33(.53)	3.54(.57)
	권위적	2.84(.51)	2.97(.57)
	허용적	2.92(.51)	3.06(.48)
	<i>F</i>	37.41***	45.56***

*** $p < .001$

평균(표준편차)

〈표 10〉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연결과 융통 요인에서 차이를 나타냈다($F(2, 442)=51.17$, $p < .001$; $F(2, 446)=64.13$, $p < .001$ (父); $F(2, 443)=37.41$, $p < .001$; $F(2, 447)=45.56$, $p < .001$ (母)). 집단 간 양육태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결과 융통 모두 부모가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집단이 권위적 양육태도나 허용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권위적 양육태도 집단과 허용적 양육태도 집단 간에는 가족 기능의 균형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가족 기능 유형과 부모양육태도 간의 관계

가족 기능이 균형을 이룬 가족과 극단 가족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균형을 이룬 가족의 경우 극단 가족보다 부모 모두 민주적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았고, 권위적이거나 허용적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는 낮았다. 이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적절히 균형을 이룬 가정의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민주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11> 가족 기능 유형별 부모양육태도 차이검증

변 인	구 분	민주적 양육태도	권위적 양육태도	허용적 양육태도
가족기능 (父)	균형가족	3.53(.60)	2.56(.68)	2.47(.63)
	극단가족	2.96(.63)	2.79(.64)	2.92(.67)
	<i>t</i>	6.62***	-2.48*	-4.95***
가족기능 (母)	균형가족	3.61(.57)	2.52(.64)	2.40(.62)
	극단가족	3.19(.63)	2.74(.61)	2.72(.63)
	<i>t</i>	5.27***	-2.42*	-3.63***

*** $p < .001$, * $p < .05$

평균(표준편차)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척도(PAQ)를 타당화하고, 한국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양육태도 유형이 어떠하며, 이에 따른 가족 기능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 척도(PAQ)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Buri(1991)의 민주적 양육태도, 권위적 양육태도, 허용적 양육태도의 3요인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됨이 검증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PAQ의 24개 문항 전체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5$ (父), $.60$ (母)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요인별 내적 신뢰도는 .49-.88로, 허용적 양육태도의 내적 일치도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그 이외의 각 요인들은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모양육태도 척도(PAQ)와 부모양육행동 척도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PAQ에서 3가지 양육태도에 대해 정의내린 특성과 일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PAQ가 타당한 검사 도구임을 증명한 것이다. 2가지 척도의 상관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신의 부모가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부모를 친밀하고 자유로움을 주

는 존재로 느끼는 반면에, 권위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통제하고 과잉보호 하는 존재로 느끼며, 허용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움은 주지만 친밀하거나 합리적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국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본 결과, 부모 모두 민주적으로 지각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모가 서로 같은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75.6%로 나타났다. 민주적 양육태도의 비율이 가장 높고 부모 간 양육태도 일치도가 70% 이상 나타나는 결과는 선행연구들(강희경, 2002; 조부월, 2007; 표경선·안도희, 2006)과 일치하는 것이다.

성별과 학교급, 그리고 경제수준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성별과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만이 유의미하였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김연실, 2000; 이해진, 2002)과는 다른 결과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권위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이며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한다는 선행연구들(문혁준, 1999; Block, 1983; Fristod & Karpowitz, 198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양육태도를 더 민주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위적 양육태도나 허용적 양육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가정의 청소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민주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권위적 양육태도나 자녀의 행동을 거의 통제하지 않는 허용적 양육태도의 경우는 경제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여유로울수록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권혜진 외, 2005; 박영신·김의철, 1998)과 동일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원인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권위적 양육태도나 허용적 양육태도는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부모는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각도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와 가족 기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응집성이나 적응성의 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연결, 융통 요인은 민주적 양육태도와는 정적으로, 권위적·허용적 양육태도와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가족의 기능적 균형이 유지되는 연결과 융통 상태에서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역시, 부모가 권위적이거나 허용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보다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적절한 수준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 기능이 균형을 이룬 가족과 극단 수준을 보이는 가족 간에 부모양육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에서도 균형가족의 부모는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반면, 극단가족의 부모는 권위적이거나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가 민주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만 가족응집성이나 적응성이 균형 있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부모가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족이 서로 적절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가족체계의 변화 상황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족 기능의 균형에 따른 부모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를 통해서도 이러한 주장이 뒷받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이나 성취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기능적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Buri(1991)의 부모양육태도 척도(PAQ) 구성요소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적합한 구조를 갖는지 확인하고 척도로서 타당한지 검증하였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 양상을 살펴보고 성별과 학교급, 그리고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가족 기능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가족 안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 척도(PAQ)는 Buri(1991)의 것을 그대로 번안 사용하였다. 또한 한 요인당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던 기존 척도는 한국 적용 모형을 검증

하면서 요인부하량이나 신뢰도 수준을 고려하여 6문항을 제외한 24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요인당 문항의 수가 균형을 잃었고, 이로 인해 허용적 양육태도의 신뢰도 계수가 양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본 연구를 토대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추가문항을 개발하여 보다 다양하고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12-17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연령 폭의 확대를 통해 발달 연령별로 부모양육태도의 양상을 밝혀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지역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동질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만을 살펴 보았다. 추후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 도전 등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관련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 록 1]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평소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들에는 옳고 틀린 답이 없으니 현재 여러분이 느끼는 상태를 솔직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자녀들도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2. 의견이 다를 때 당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3.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때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4. 가족 내에서 규칙이 정해지면, 나와 그 이유를 의논하신다.					
5. 내가 가족 내의 규칙과 규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신다.					
6. 내 의견이 당신과 맞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					
7. 내가 당신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8.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을 통해 나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지도하신다.					
9. 내가 당신의 기대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10. 규칙이나 규제를 단지 권위 있는 사람이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11.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나는 언제라도 부모님과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느낀다.					
12. 현명한 부모는 가족 중에 누가 결정권을 가졌는지를 자녀들에게 일찍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13. 나의 행동에 대해 어떤 기대나 지침을 거의 제시하지 않으신다.					
14. 가족의 일을 결정하실 때 대부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하신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5. 나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행동방향이 나 지침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신다.					
16. 내가 당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매우 화를 내신다.					
17. 어른들이 아이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 주면 대부분의 사회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18. 어떤 행동을 기대하고 있는지 나에게 알려 주었는 데도 내가 그 기대에 못 미칠 때에는 벌을 주신다.					
19. 나 스스로 대부분의 일을 결정하도록 별 개입 없 이 내버려 두신다.					
20. 가족의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내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뭔가를 결정하지는 않 으신다.					
21. 당신이 나의 행동에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줄 책 임이 있다고 여기지 않으신다.					
22. 집안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 고 계시지만, 아이들 각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기꺼이 그 기준을 조절해 주신다.					
23. 나에게 행동방향과 활동을 제시해 주시기는 하지 만, 항상 나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해 야 할 지 함께 의논하신다.					
24. 가족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을 말하도록 해 주시고,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해 주신다.					
25.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엄격하고 강하게 다룬다면 대부분의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신다.					
26.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기 를 원하는지 분명하게 자주 이야기하신다.					
27. 나의 행동과 활동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시지 만, 내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신다.					
28. 가족 내에서 나의 행동이나 활동 욕구들에 관여하 거나 직접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으신다.					
29. 단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당신의 기대를 따르라고 하신다.					
30. 가족 내에서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정을 하게 된 경우, 그것에 대해 나와 이야기하시고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신다.					

참 고 문 헌

- 강희경(2002). 부모의 초기 권위 유형과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완벽성.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3호, pp. 37-55.
- 권혜진·김경희·염순교·조주연·함미영(2005). 남자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양식과 성역할 정체성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4호, pp. 19-38.
- 김수연(1998). 가족사정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순환모델 척도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실(2000). 부모 권위에 따른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경·권희경·전제아(2006). 부모양육행동, 아동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문제 해결력 간의 구조모델. *아동학회지*, 제27권 제3호, pp. 149-168.
-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집단성격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1999).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현심·김민정·박보경·황영은(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pp. 185-195.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6호, pp. 97-107.
- 박영신·김의철(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4권 제1호, pp. 29-53.
- 방희정(2000).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6권 제3호, pp. 41-65.
- 송지영(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제31권, pp. 979-991.
- 오정현·정태연(2006).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식에서의 차이. *한국심리*

- 학회지: 학교, 제3권 제2호, pp. 43-54.
- 원유미(1999).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 및 의사결정유형과 자녀 자아개념과의 관계. 교육연구, 제8권, pp. 79-103. 원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이상길(2004). 가정배경 변인에 따른 일반계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3호, pp. 435-448.
- 이숙·우희정·김미란(2000).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제3권 제1호, pp. 64-72.
- 이순목(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영미(1992).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불일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연관성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진(200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부월(200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및 일치 정도와 유아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27권 제4호, pp. 105-133.
- 표경선·안도희(2006).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완벽주의, 성취목적, 부모 양육방식 및 학업성취 간의 관계 모형. 아동교육, 제15권 제2호, pp. 211-227.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Vol. 67 No. 6*, pp. 3296-3319.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Vol. 4 No. 2, Pt. 2*.
-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Vol. 54 No 6*, pp. 1335-1354.
- Browne, M. W., and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Buri, J. R. (1991). 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57 No. 1*, pp. 110-119.

- Coleman, M., Ganong, L., and Fine, M. (2000). Revisiting remarriage; Another decade of prog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23 No. 4, pp. 1288-1315.
- Feetham, S. L. (1983). Family research in nursing. *Annual Review of Nursing Research*, Vol. 2.
- Feldman, B., and Alto, P. (1996). Identity, sexuality and the self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Vol. 41 No. 4, pp. 491-507.
- Fristod, M. A., and Karpowitz, D. H. (1988). Norms for the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modified form. *Psychological Reports*, Vol. 62, pp. 665-666.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on, S. F., and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4, pp. 687-697.
- Hofferth, S. I. and Anderson, K. G. (2003). Are all dads equal?; Biology versus marriage as a basis for paternal inve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5 No. 1, pp. 213-233.
- Kim, U., and Choi, S. H.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Greenfield & R. R. Cocking(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pp.227-25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Olson, D. H., Russel, C. and Sprenklem D.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Vol. 22, pp. 69-83.
- Paikoff, R. L., and Brooks-Gunn, J. (1991). Do parent-child relationships change during puberty?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0, pp 47-66.
- Parker, G., Tupling, H., and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Vol. 52, pp. 1-10.
- Spencer, M. B., and Dombusch, S. M. (1990). Challenges in studying minority children. In S. S. Feldman & G. L. Ellio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pp.123-14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25, pp. 173-180.

ABSTRACT

The Validation of the PAQ and the Relationship with Parenting Style and Family Function

Lee, Hyun-Joo*· Kang, Min-He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wofold. The first goal was to validate the 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 (PAQ), as developed by Buri (1991). Secondly the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judgment of adolescents towards the parenting style of their par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s by adolescents and family function, focusing on its cohesion and adaptability.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as 475; 206 were junior-high school students and 269 were in high sch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PAQ were identified. That is,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model fitness and the Cronbach values (.49-.88) were also good. Next, all sub factors of PAQ had a positive or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ub factors of the Parenting Behavior Scale which was implemented as a criterion related scale so that its concurrent validity was proved. Second, the concordance rate of judging the father's parenting style and the mother's was 75.6%, and more than 60% of Korean adolescents were apt to perceive the parenting style of their parents as being democratic. Additionally, boys were more apt to perceive it as being authoritarian than girls. In addition to this, the adolescents of the higher economic status group were more inclined to

*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 corresponding author, SungKyunKwan University

perceive it as being democratic than those of the lower group. Next, adolescents whose parents were democratic were apt to perceive their families as being balanced in terms of both their adaptability and cohesion. Meanwhile, adolescents whose parents wer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were apt to perceive their families as being extreme in terms of both their adaptability and cohesion.

Key Words : parenting style, family adaptability, family cohesion

투고일 : 3월 15일, 심사일 : 7월 8일, 심사완료일 : 7월 8일

